

2018 DATA Science BIG DATA HACKATON

빅데이터 경영통계전공 3관왕 수상...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체국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혁신적인 우정서비스 아이디어와 새로운 빅데이터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2018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해커톤' 이 12월 20~21일 무박 2일로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우체국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우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참가하여 함께 경쟁을 하였다. 공통된 주제는 제공된 택배 배송 데이터를 분석하여 2017년 하반기 공휴일 전후 3일 간의 택배 배송량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본 대회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국민대학교 빅데이터 경영통계 전공에서 모두 수상한 점이다. 먼저 대상 팀인 사랑과 우정사이(임필령(13), 전민재(13), 소민걸(13), 이유찬(14)) 팀은 '우체국 택배 물류 예측을 통한 스마트 우편함 위치 선정 제안'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구별 연령대별 인구 및 공휴일과 관련된 여러 파생변수를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하였고 XGBOOST 모델을 통해 서울지역 택배량 예측에서는 1위, 경인 지역 택배량 예측에서는 2위를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우편함 위치 선정 및 사회 공헌형 재래 시장 물류 센터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단순 예측 모델 뿐만 아니라 우정 사업본부가 사회적으로도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수상 팀은 D&A (김동규(14), 최영제(14), 임진혁(14), 황태용(14))로 '소셜 리스닝 및 배송 불안정 지수 생성을 통한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 제시' 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우체국 택배와 관련된 여러가지 텍스트 데이터와 구별 인구 데이터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LSTM, XGBOOST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수행했으며, 경인 지역 택배량 예측에서 1위를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택배량 예측 모델로는 수행할 수 없는 택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불만과 같은 감정을 조명하기 위해 소셜 리스닝 및 배송 불안정 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체국 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FT팀(양현철 외 1명)은 비대면 우체국 보험 상품 솔루션을 제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본 대회에서 국민대학교 빅데이터 경영통계 전공 팀이 강세를 보인 점은 의사소통 능력과 통계적 지식을 비즈니스적 도메인과 연결하는 능력 덕분이다. 대회가 무박 2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속에서 진행 됐다는 점에서 개인의 역량보다 중요한 점은 팀플레이 였다. 평소에 전공, 학회, 공모전에서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본 학생들에게 이번 대회는 그 동안 같고 닮은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환경 이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통계적 모형들을 적절한 상황에 적용하고 이를 비즈니스적 가치로 창출하는 능력은 빅데이터 경영통계 전공 학생들만의 탁월한 능력이다 빅데이터 경영통계 전공은 통계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는 전공이지만 경영학부 안에 속해 있는 전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전공이다. 2019년에도 빅데이터 경영통계 전공 학생들의 행보가 매우 기대된다.